



# 湖南新聞



1946년 3월 창간 제 2549호

이메일 : ihonam@naver.com

홈페이지 NAVER 호남신문 검색

2018년 7월 23일 (음력 6월 11일) 월요일

## 보수문 연 영산강 불볕더위에도 녹조 줄었다



광주 남구 승촌보 수문 4개가 전면 개방돼 이 일대 영산강 수위 2.5m를 유지하고 있는 지난 20일 보 우안 강기슭에 녹조띠가 형성돼 있다. <사진 왼쪽> 승촌보 수문 개방으로 유속이 보이는 영산강 (사진 오른쪽).

지속된 불볕더위에도 보가 개방된 영산강에 녹조(綠潮) 현상이 비교적 줄고 있는 모양새다.

열흘째 폭염이 기승을 부린 지난 20일 오후 광주 남구 영산강 승촌보.

지난 4월부터 보 수문 4개가 모두 열려 수위 2.5m를 유지하고 있는 이곳엔 강물의 빛이 극명한 대비를 이뤘다.

물 흐름(유속)이 관찰되는 보 하류 수문 앞쪽에는 녹조가 없었지만, 햇빛이 반짝이며 내리쬐는 좌·우안 강기슭은 녹조로 뒤덮였다.

녹조 알갱이와 함께 늘어진 녹조 띠가 보였고, 강변과 부딪히며 탁한 거품을 내뿜고

도 했다. 보 구조물 아래에서도 녹조 융덩이가 관찰됐다.

죽은 물고기가 녹조에 뒤섞여 둥둥 떠내려가는 모습도 보였다.

반면, 개방된 수문 쪽에는 물살이 잡시 정체됐다. 이어지는 구간에만 녹조 알갱이가 일부 관찰됐다.

승촌보 상류는 강 흐름이 빨리지고 수위가 낮아졌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다.

수문 개방 전에 볼 수 없었던 모래톱·여울·하중도가 보였고, 철새 수십여 마리가 서식 활동을 하고 있었다.

같은 날 찾은 강 종류지점인 전남 나주시

수문 열린 곳 녹조 없어…강기슭엔 녹조띠 형성 극명 대비

“물흐름 연속·지속 확보 가장 중요…보 철거 필요성 제기”

영산포 선착장 기슭, 약 1km 구간에서만 청색빛의 옅은 녹조가 관찰됐다.

선착장에서 만난 한 시민은 “나흘 전부터 물빛이 터져졌지만 예전에 비해 (녹조가) 절은 편도 아니고 악취 또한 풍기지 않는다”고 전했다.

영산강은 보 개방 전인 지난 2015년 5월 때이른 무더위로 신광천·구진교·영산대교·배수문교 지류 끝쪽한 녹조에 물살을 않았다.

승촌보·죽산보 건립 이후 영산강 보 주변 녹조 발생 일수도 2014년(3회·12일), 2015년(4회·52일), 2016년(4회·99일) 등 해마다 증가세를 보였다.

올해에는 지난해보다 열흘 가량 이른 폭염이 찾아와 수온이 올랐지만, 수문 개방으로 유속이 빨라지면서 녹조류·남조류가 급격히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4대강 보 개방 1년 도너터링 결과를 발표하고 영산강의 조류 능동가 37% 감소했다고 밝혔다.

최지현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22일 “녹조가 줄어든 것은 수문을 열어 유속이 빨라지고 유기영양물질의 자정 능력이 생겼기 때문이다”고 전단했다.

이어 “강기슭에만 녹조띠가 형성된 점으로 미뤄 보 구조물이 존재돼 있는 이상 녹조 저감의 학제는 분명하다”며 “하천 생태계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선 보를 철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창근 카톨릭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도 “녹조 발생 요인은 크게 물 흐름 정체, 오염 물질(질소·인 등), 운도 등으로 볼 수 있다. 기온과 오염물질 유입(하수·비료 등에서 나온 인 물질)은 사실상 제어할 수 없다”며 “결국엔 물 흐름의 연속·지속성을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남조류 녹소는 사람·어류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는 올해 말 영산강에 위치한 5개 보 처리 계획을 발표 방침이다.

신봉우 기자



기우?

정당 지지를 상승시켜 함께 절나가던 정의당에 예기치 못한 악재가 등장했다. 드루킹 특검 수사대상에 오른 ‘노회찬 변수’다. 드루킹 특검팀(특별검사 하익범)은 17일 경제적 공진회모임(경공모) 핵심회원인 도모 변호사를 긴급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한 방침이다. 특검팀은 도 변호사가 2016년 경공모 차원에서 5000만원의 후원금을 모아 노회찬 정의당 원내 대표에게 전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도 변호사와 노원내대표는 경기도 72회 동창이다. 도 원내대표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설에 정의당 내부는 발칵 뒤집혔다.

정의당 중앙당에서도 이 사건을 주의깊게 지켜보고 있다. 정의당은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지난 13~14일 실시한 정당지지를 조사에서 8.3%를 기록해 자유한국당 8.1%를 제치고 2위(1위는 더불어민주당 51.2%)를 차지했다. 관련 인사들의 속내를 상상해 본다.

서은홍·자료사진=뉴시스



##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 전국에 수목 매력 알려

### 열흘간 홍보단 가동

고향에서 열리는 행사를 큰 관심을 보였으며, ‘수목비엔날레’ 관람과 고향 방문을 연계해 추진할 뜻을 비치기도 했다.

이번 전국 홍보단 활동은 올해 첫 선을 보이는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의 전국적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다른 시·도에 ‘수목비엔날레’의 의미와 매력을 널리 알리기 위해 추진됐다.

전남도는 2개 전국 순회 홍보단을 구성해 찾아가는 홍보로 미술 애호가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계획이다.

또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 사무국은 휴가철을 맞아 8월부터 전국 휴게소에 수목비엔날레 홍보 영상을 표출할 계획이다.

2018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는 국내 최초의 전통 회화 비엔날레다.

‘오늘의 수목 어제에 묻고 내일에 답하다’라는 주제로 오는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목포 문화예술회관 일원과 진도 운립산방 일원에서 펼쳐진다.

김정환 기자

## 대한기자협회 광주전남협회

### 어머니기자단 상반기 수료식



동구지회 이남희 단장 외 회원 9명, 광주북구지회 김나영 단장 외 회원 14명, 광주서구지회 최소망 단장 외 회원 18명, 전남동부권지회 서정분 단장 외 회원 5명 등 교육이수자 전원에게 수료증을 수여하고 신분증을 달이켰다.

이들은 향후 2년간 광주전남협회보와 개인 SNS 등을 통해 광주전남의 문화, 축제, 관광지, 지역정보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현장탐방, 체험, 인터뷰 등으로 생생히 취재해 콘텐츠를 제작, 협회 및 광주전남지역을 홍보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한편 시민법인 대한기자협회 광주전남협회 어머니기자단은 27개 시·군·구(7개 권역) 300여명으로 조직돼 있으며, 빛과 소금이 되어 ‘너불어 행복한 세상’을 슬로건으로 일선 어머니기자들 중심의 연합체이다.

서은홍 기자

## 제46회 강진 청자축제

2018. 7. 28.- 8. 3.(7일간)

전라남도 강진군 대구면 고려청자박물관 일원

개막퍼포먼스 : 2018. 7. 28.(토) 오후 7시

□기획행사 : 흙을 밟고·던지고·적시고(투게더 점핑 소임), 전국 물레성형경진대회 등  
□전시행사 : 전국 도자 전시 및 판매, 제18회 고려청자 특별전, 조선민화 특별전 등  
□체험행사 : 불링공 청자 깨뜨리기, 물 풍선타뜨려 청자 가져기, 초대형 워터 슬라이딩  
□공연행사 : 광주KBC개막 축하쇼, 나이트 팝 페스티벌, 한여름밤의 EDM 공연 등



투게더 점핑 소임



초대형 워터 슬라이드



살수대첩 거리 퍼레이드



지상 최대의 물싸움



장흥 워터 풀파티

제 11회  
장흥군

장흥 물축제

2018. 7. 27.(금) ~ 8. 2.(목) / 7일간

장흥군 및 편백숲 우드랜드 일원

- 개막식 : 7월 27일 (금) 오후 8시
- 살수(蘸水)대첩 거리 퍼레이드 : 7월 28일 (토) 오후 1시
- 지상 최대의 물싸움 : 7월 27일 (금) ~ 8월 2일 (목) 오후 2시
- 맨손 물고기 잡기 : 7월 28일 (토) ~ 8월 2일 (목) 오후 3시
- 장흥 워터 풀파티
  - 7월 27일 / 로고, 다이나믹듀오, DJ 소다, DJ 두유
  - 7월 28일 / DJ 원투, DJ 혁조교
  - 7월 29일 / DJ 춘자, DJ miss K

